



보도시점 2026. 1. 30.(금) 15:00 배포 2026. 1. 30.(금) 14:30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상반기 70% 이상 집행

-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 방문,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당부
-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연초 1,300억원(13%) 집행, 상반기 70% 이상 집행 목표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1.30일(금) 14: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주)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사업 집행점검 및 현장방문 개요 >

- ▶ 일 시: '26.1.30.(금) 14:30~15:30
- ▶ 장 소: (주)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 ▶ 참석자: (정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재정투자심의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서울동부지사장, 조직예산부장
(기업)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사업지원팀장 등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참여자 모집을 완료(1.21일)하고 1월 말까지 약 1,300억원(13%)을 집행하였다. '26년 신규사업인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은 시스템 구축 중으로 금년 4월부터 신청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훈련(의사소통, 직장예절 등)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 *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규모(억원): ('23) 8,478 ('24) 9,053 ('25) 9,372 ('26) 10,137
- *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50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 규모의 의무고용 미충족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월 35~45만원 지원

강 실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집행상황을 점검한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주)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였다.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는 모회사인 (주)에이피알의 사내 물류관리, 카페운영 등의 사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전체 근로자(43명) 중 장애인 근로자(26명)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리스타, 헬스키퍼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
(’23년 694개 → ’24년 797개 → ’25년 873개)

강 실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일선 현장의 관계자 등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기업 성장과 장애인 고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범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강 실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AI 대전환 등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25.10월)
<민간> (現) 3.1% (’27) 3.3% (’29) 3.5% / <공공> (現) 3.8% (’29) 4.0%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재정집행과	책임자	과 장	정석철 (044-214-3270)
		담당자	사무관	정유정 (yurigip7@korea.kr)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책임자	과 장	고혜연 (044-202-7481)
		담당자	사무관	남덕렬 (drnam96@korea.kr)